

덜덜덜... 광주천변 자전거 도로 노후화 심각

제2광천교~극락교~서창교 탐방

탄소중립도시 말뿐... 예산 부족 자전거전용도로에 보행자 확보 높은 턱·방지턱에 라이더 위험 광주시 "현장조사 후 선별 보수"



광주천변 자전거 도로가 노후화 되고 턱이 높아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면과 5cm 이상 차이나는 영산강변 나무다리가 라이더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자전거 도로가 엉망이어서인지 라이더들이 다 도로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광주천변 자전거 도로에서 만난 50대 라이더 안모씨가 울퉁불퉁 파인 도로를 가리키며 인상을 찌푸렸다.

안씨가 가리킨 자전거 도로는 포장에 벗겨져 움푹 파이고 균열이 나왔다. 하천을 잇는 다리는 볼록 솟아올라 5cm 이상 차이가 난다. 무심코 내달리다보면 걸려 넘어질만한 곳들이 곳곳에 보였다.

안씨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겸용 도로가 대부분이다. 라이더들은 보행자 눈치를 보며 다니다 결국 도로로 나간다. 올라가게 돼 결국 목숨을 걸고 주행하는 꼴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 도로가 산보다 험하다고 느낄 때도 있다. 천변도 마찬가지로 일부 구간만 정비돼 있다"며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은 길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용도로가 있는 천변에서도 마음 놓고 달릴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 안씨는 '자

전거전용도로'라 쓰인 길을 가리키며 "전용도로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제재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얘기하는 순간에도 라이더들이 길 가장자리로 보행자를 피해 가는 모습이 보인다.

자전거 도로 정비 확인을 위해 제2광천교 부근에서 극락교~서창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둘러봤다.

일부 구간은 도로가 움푹 패이고 노면 균열·방지턱·높은 턱 등도 발견됐다. 극락교까지 가는 길은 최근 보수가 완료된 듯 깔끔했지만 이후 구간은 핸들을 잡아도 몸이 떨릴 만큼 도로가 노후했다. 경사가 가 마련되지 않은 높은 나무다리도 무용지물 방지턱도 대책이 필요해 보였다.

70대 한모씨는 "보행자 산책로와 자전

거도로가 합쳐지는 구간이 있다. 자전거와 보행자 간 충돌이 생기면 위험하니 속력을 줄이라는 취지로 방지턱을 만들었다"며 "방지턱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있어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을 모르고 설치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전동자전거를 탄 지 1년된 백동호

(52)씨는 "수변 자전거길에는 턱이 높은 나무다리 방지턱이 있다. 속도를 줄여도 자전거가 튕겨져 나간다"며 "위험한 구간을 만날 때는 늘 불안해 밤에는 주행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총 466개로 전체 길이는 664.77km에 달한다. 이 중 전용도로 25개 112.91km, 겸용도로 3개 8.37km, 겸용도로 432개 525.02km, 우선도로는 6개 18.47km가 조성됐다.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다. 겸용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지난해 58건, 32.4km의 자전거 도로가 정비됐다. 올해 57건, 21.71km를 정비할 계획이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광주시 자전거도로 유지 예산은 27억으로 자전거도로 정비는 9억9000만원이 소요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비 등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있지만 국가재정난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상태다. 영산강 주변에도 낙후된 자전거 도로가 많다. 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동호회원들이 많아 이곳에 6억3000만원이 교부돼 있다"며 "현장 조사 중이며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은 선별적으로 보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사진·나다운 수습기자

한국전쟁 시기 화순·장성·장흥 민간인 희생 규명

진화위, 국가 사과·피해회복 권고

한국전쟁 시기 전남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실태가 드러났다.

1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전남 서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6차 위원회에서 △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3)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 △장흥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 등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3)'은 1950년 11월부터 1951년 11월 사이 화순 도곡면·동면·북면·이서면·춘양면·한천면·화순면 등지에서 민간인 17명이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화순에 거주하던 민간인 17명은 이장, 국회의원의 아들이거나 군경수복환영회 참석, 입산 거부, 좌익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됐다.

진화위 관계자는 "화순에서 신청된 적

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114건 중 83건(진실규명대상자 112명)이 진실규명됐다"고 말했다.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장성 동화면과 삼서면에 거주하던 주민 19명이 부역 혐의자 또는 빨치산 협조자라는 등의 이유로 국군 및 경찰에게 학살된 사건이다.

희생자는 20~30대 남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가해자는

국군 제11사단 20연대 군인 및 장성경찰·지서 소속 경찰관 등으로 확인됐다. 진화위는 화순 동화면 용정리 가정마을 뒷산, 삼서면 수양리 하수마을 인근 논, 삼계면 사창리 대명재 등 희생자들이 살해된 장소도 특정했다.

같은 기간 장흥에서도 주민 27명이 경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장흥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장흥 대덕면 등지에 거주하던 주민 27명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게 살해됐다. 한국전쟁 발발 후 장흥 지역은 경찰에 의해 수복된 상태였다.

장흥 희생자들 역시 농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20대가 가장 많지만 10대부터 40대까지 분포돼 있고 영아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화위는 해당 사건들에 대해 희생자 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등을 검토·분석해 진실규명 결정했다.

진화위 관계자는 "국가에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지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